

해방 직후 이주홍의 『初等國史』 편찬과 고대사 서술의 함의

서용태*·박형준**

1. 서론
2. 『初等國史』 편찬의 외적 배경과 내적 역량
3. 『初等國史』의 편제와 서술상의 특징
4. 『初等國史』의 고대사 서술과 민족사 재구성 의지
5.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해방 직후 이주홍이 집필하고 자유발행 형식으로 펴낸 국사 교과서 『初等國史』의 편찬 배경, 역사 서술체제와 특징, 고대사 교육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연구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못했던 이주홍의 역사인식과 교육적 함의를 고찰한 연구이다. 해방 후 모국어로 된 국정 국사 교과서가 출판 및 보급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주홍은 일제시기 아동문학가이자 편집장으로 활동했던 역량을 바탕으로 빠르게 『初等國史』 교과서를 출간했다. 『初等國史』는 민족주의 사학자들의 역사인식과 서술 내용에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일부 독자적인 서술 방식과 내용을 보여준다. 『初等國史』의 고대사 서술과 교육내용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책의 고대사 서술 내용에서 제국주의시대의 사회진화론적 역사인식의 단면을 발견할 수 있다. 둘째, 『初等國史』의 단군과 고조선 서술은 보편적 민족사 서술의 내용을 대

* 제1저자: 해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과 강사(historyseo@hanmail.net)

** 교신저자: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교육전공 부교수(corea@bufs.ac.kr)

체로 따르면서도 현재의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기자조선을 강조하기도 한다. 셋째, 단군과 고조선 이후의 고대사 서술에서 고구려와 부여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넷째, 이주홍은 남북국시대론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初等國史』의 고대사 서술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이다. 즉, 이주홍은 고대사의 가치를 부각하는 역사서술의 전략을 통해 신국가 건설에 필요한 ‘민족사 재구성’의 의지를 표명하는 역사인식과 교육적 실천을 보여주었다.

* 주요어: 이주홍, 『初等國史』, 국사 교과서, 국사교육, 역사인식

1. 서론

이 논문은 해방 직후 향파 이주홍이 집필하고 자유발행 형식으로 펴낸 국사 교과서 『初等國史』의 편찬 배경, 역사 서술체계와 특징, 고대사 교육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연구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못했던 이주홍의 역사인식과 교육적 실천의 함의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주홍(1906~1987)은 부산을 대표하는 아동문학가로 알려져 있으며, 지역에서 평생 후학을 가르쳐온 교육자이다. 기존의 이주홍 연구는 작가론과 문학, 미술, 만화 등에 대한 작품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사/교수로서의 교육적 활동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다가,¹⁾ 박태일의 「이주홍론—교육자로서 걸었던 길」을 계기로 조금씩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주홍은 해방 이후 서울의 배재중학교, 부산의 동래중학교, 부산수산대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국문학 강의, 문예 창작, 연극 지도 등에 힘을 쏟았으며 다양한 교과용 도

1) 향파(向破 혹은 香波)는 이주홍의 호이다. 이 글에서는 이주홍으로 통일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이주홍은 아동문학가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시, 동시, 소설, 동화, 수필, 희곡, 시나리오, 중국고전 번역, 서예, 회화, 만화, 출판 장정 등 곳곳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하였다. 2006년 5월 부산에서 열린 ‘향파 이주홍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문학제’는 다양한 성과를 조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주홍의 교육 활동에 관한 연구는 소략한 실정이다.

서를 편찬하기도 하였다.²⁾

이주홍은 해방 직후 배제중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국사 교과서 『初等國史』를 명문당에서 정식 발간하였으며, 국어과 교과서인 『新國文選』(南푸린트社), 『中等國文 卷上』(南푸린트社), 『中等國文 卷下』(南푸린트社)를 유인본으로 편찬 및 제작하였다. 또한 1947년 9월부터 부산 동래중학교에서 근무하며 『李朝歌辭集』, 『新古國文選』 등의 국어과 교과서를 유인본으로 펴냈다.³⁾ 이주홍이 편찬한 여러 교과용 도서 중에서도, 『初等國史』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初等國史』(明文堂, 1945.12.15.)는 해방 당해를 넘기지 않고 펴낸 교과용 도서로 당시 서둘러 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마련하고자 했던 작가이자 교육자로서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국사 교과서이기 때문이다. 둘째, 『初等國史』는 다른 국어과 교과서와 달리 ‘유인본’ 제작이 아니라 ‘명문당’이라는 출판사에서 정식 출간되었다는 사실이다. 유인본 교과서가 학교 내부용 교재였다면, 출판사에서 펴낸 교과용 도서는 유통과 대중 독자와의 소통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⁴⁾ 그만큼 해방 조국의 역사와 전통을 폭넓게 알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방증이다. 셋째, 그렇다면 이주홍이 『初等

2) 이주홍이 부산에서 교육자로서 살아온 전기와 상세한 내력에 관해서는 박태일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당시 중학교 학제는 6년 과정(초급 3년, 고급 3년)이었는데, 이주홍이 근무한 배제중학교와 동래중학교는 현재의 배제고등학교, 동래고등학교에 해당하며 부산수산대학교는 지금의 부경대학교이다. 박태일, 「이주홍론—교육자로서 걸었던 길」, 『경남·부산 지역문학 연구』 1, 청동거울, 2004, 235~259쪽.

3) ‘유인본(油印本)’은 필경공이 철판로 원지에 글자를 쓰고 등사공이 등사판에 이를 겹고 롤러로 밀어 만든 책으로 일명 ‘프린트본’이라고 불린다. 유인본은 출판 용지와 인쇄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과서를 편찬하는 방법이었는데, 이주홍이 편찬한 교과용 도서는 대부분 유인본이다. 1949년 부산수산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1952년 펴낸 대학 교재 『國文學發生序說』 1 역시 유인본이다. 유인본 교과서와 관련한 일반적인 내용은 이대의, 『나와 검은정 교과서』, 중앙출판공사, 2007, 22~27쪽을 참조할 것.

4) 『初等國史』는 이주홍이 편찬한 교과용 도서 중에서는 유일하게 ‘판권지’가 있다. 단기 4278년 12월 1일에 인쇄하여 단기 4278년 12월 15일에 명문당에서 발행하였다는 서지 사항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명문당의 대표는 김혁제이며, 자체 인쇄소(“明文堂 印刷部”)를 겸비하고 있었다. 해방 직후 “일제 때 설립”하여 “일시 중단”하였거나 겨우 “명맥을 유지하던 업체”들이 다시 “출판 활동을 재개”했는데, 명문당 역시 그러한 출판사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 이종국, 『한국의 교과서 변천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8, 126쪽.

『國史』를 통해 널리 알리고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은 무엇일까? 바로, 일제의 식민지 지배로 왜곡되고 훼손된 민족사의 전통과 가치를 복원하는 일이었다. 본문에서 상세하게 논의하겠지만, 이는 『初等國史』에 반영된 ‘고대사’⁵⁾ 서술과 내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고대사 재정립은 해방 후 국사교육(계)의 핵심 과제였다. 고대사에 대한 재인식이 일제의 식민주의 사학으로부터 벗어나 민족사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내용과 방법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다.⁶⁾ 실제로, 해방 직후 발간된 국정 국사 교과서 『초등국사교본』은 그 내용의 절반 이상을 고대사 서술에 할애하고 있다. 이주홍의 『初等國史』는 고대사부터 식민지 시기까지 매우 포괄적인 내용을 서술하고 있으나, 저자의 교과서 편찬 의도와 역사인식은 고대사 교육내용에서 특히 잘 드러난다. 선행 연구를 참조하자면, 이주홍이 해방 직후에 ‘독본(讀本)’ 형식으로 편찬한 국어과 교과용 도서 『新國文選』, 『中等國文』, 『李朝歌辭集』, 『新古國文選』 등에 수록된 작품은 “고전과 전통”을 기반으로 “민족어와 민족사에 대한 이해와 고취”⁷⁾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어과 교과용 도서에 수록된 작품의 경향성 연구만으로는 이주홍의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의 지향점을 이해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주홍은 작가로서의 삶과 교육 활동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민족 전통과 역사를 강조해 왔으나, 기존 연구에서는 이주홍의 현실인식과 역사인식을 해명하기 위한 시도가 역사소설 분석이나 문학교육에 대한 접근을 통해 일부 이루어졌을 뿐이다.⁸⁾ 『初等國史』에 반영된 고대사 교육내용은 이를 구체

5) 3장에서 설명하겠지만, 『初等國史』에서는 고대사를 “제1편 상고사(上古史)”, “제2편 중고사(中古史)”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이 논문의 본문에서 사용하는 ‘고대사’와 ‘고대사 교육 내용’이라는 용어는 『初等國史』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1편과 제2편의 시기와 내용을 포함하는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6) 김홍수, 『한국역사교육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2, 122쪽, 148쪽.

7) 이주홍이 편찬한 국어과 교과서 『新古國文選』의 문학작품 및 제재 선정/수록 전략이 “민족 정신의 가치와 문화를 계몽하고 전파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행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주홍이 해방 직후 편찬한 국어과 교과서에 대한 연구 성과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박형준, 「이주홍의 유인본 교과서와 문학교육—『新古國文選』을 중심으로」, 『인문학논총』 45,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73~74쪽.

적으로 확인하고 설명할 수 있는 실증적 텍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논문에서는 해방 직후 이주홍이 펴낸 국사 교과서 『初等國史』의 편찬 배경, 역사 서술체계와 특징, 고대사 교육의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함으로써, 기왕의 연구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못했던 이주홍의 역사인식과 교육적 실천의 함의를 고찰해 보도록 할 것이다.

2. 『初等國史』 편찬의 외적 배경과 내적 역량

해방 후 교육 현장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모국어로 국어와 역사를 가르치는 데 필요한 내용과 방법(매체)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교육정책의 여파로 학교에는 국어와 역사를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해방 직후 역사학자, 국문학자, 국어학자를 비롯한 교육자들이 국사와 국어 교과서를 서둘러 편찬하게 된 것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이다. 이주홍이 해방 직후 중등교원으로 근무하면서 국어, 문학, 국사 교과서를 직접 편찬 및 출간한 것, 특히 1945년 12월 15일 해방 당해를 넘기지 않고 가장 먼저 『初等國史』를 펴낸 것도 이러한 이유로 설명되어왔다.⁹⁾ 이주홍이 해방 직후 배재중학교에 재직하면서 교과용 도서를 직접 편찬하여 강의 교재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교육사적 배경, 또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외적 상황으로, 해방 직후 모국어로 된 교과서가 부재한 상황에서

8) 황국명은 「이주홍 역사소설의 방향」에서 역사에 대한 이주홍의 문학적 관심과 서술 경향을 분석하면서, 그가 역사소설을 통해 “정의로운 역사의 심판과 민족의 공동체적 연대를 당면한 과제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황국명, 「이주홍 역사소설의 방향」, 『이주홍 문학저널』 4, 세종출판사, 2006, 89~119쪽.

9) 최해균, 「향파 이주홍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문학제에 부쳐」, 『이주홍 문학저널』 4, 세종출판사, 2006, 27쪽.

긴급하게 교육 법령 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개발 및 편찬하고자 했으나, 정식 교과서를 출판하기에는 교원, 생산 시설, 교과서 용지가 부족했다는 사실이다.

8월 15일 해방 후 한국에 진주한 미군 제24군단은 전후 민간통치에 임해 본 경험은 물론 민간행정 경험을 가진 사람도 없었다. 미군은 군정을 실시하면서 1945년 9월 11일자로 라카드(Earl N. Lockard) 대위를 교육 담당 군정 요원으로 임명하고, 오늘날 교육부에 해당하는 조선총독부 학무국을 이어받아 문교행정을 관장시켰다. 더구나 당시는 학무국의 직제나 조직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고, 10월에 가서야 비로소 군정 장교들이 학무국에 배속되기 시작했다.¹⁰⁾ 미군정은 우선 교육기관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9월 17일 「일반명령 제4호」로 ‘신조선의 조선인을 위한 교육’을 발표하여 전국의 모든 공립소학교를 개학하도록 하고, 개학 이후에 적용할 교육 용어와 과정, 교사 등을 규정하였다.¹¹⁾ 이어서 9월 22일에는 ‘신교육 방침’을 발표하여 보다 구체적인 교육방침과 교육상 유의할 점 및 교과목 등을 밝혔다. 그리고 기발표된 일반명령 제4호와 신교육 방침의 내용을 개정·보완하여 9월 29일 「군정법령 제6호(교육의 조치)」로 공포하였다.

「군정법령 제6호」는 전국의 모든 공립소학교를 1945년 9월 24일 월요일에 개학하고, 조선아동으로서 6세로부터 12세 된 자는 모두 등록(제1조)하게 하며, 사립학교는 학무국의 허가를 받는 대로 개학(제2조)하도록 하였다.¹²⁾ 이에 따라 개학하는 모든 소학교¹³⁾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준비해야 했던 미군정 학무국은, 1945년 9월 16일 최초 구성된 자문기관인 조

10) 한준상, 「미국의 문화침투와 한국교육-미군정기 교육적 모순 해체를 위한 연구과제」, 『해방전후사의 인식』 3, 한길사, 1987, 558~559쪽.

11) 이는 해방 이후 한국교육에 관한 최초의 법령으로, 학교에서는 종족과 종교의 차별이 없으며(제3조), 교육(敎訓)의 용어는 조선어로 하고(제4조), 조선의 이익에 반하는 과목은 가르칠 수 없음(제5조)을 명시하는 등 일제시기와 비교하여 교육과정상 상당히 중요한 사항들의 변화가 규정되었다. 김봉석, 「『초등 국사교본』의 특징과 역사인식」, 『사회과교육』 47-1,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2008, 174쪽.

12) 내무부 치안국 편, 『미군정법령집』, 내무부 치안국, 1956, 8~9쪽.

13) 논문 기술의 편의상 ‘초등학교’ 및 ‘초등학생’으로 지칭하며, 당대 시대상 반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학교’로 병용하여 기술하도록 한다.

선교육위원회가 제안한 몇 가지 안과 9월 22일 발표한 신교육 방침을 바탕으로 「학교교육에 관한 훈령」을 마련하여 10월 21일 각 학교에 시달하였다.¹⁴⁾ 그런데 해방과 함께 일본인 교사들이 한꺼번에 물러남에 따라 심각한 교원 부족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교원의 부족과 충원의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과정이 전일제와 2부제로 각각 편성되었다.¹⁵⁾

해방 후 교육의 가장 큰 변화는 조선어로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일제 때는 가르치지 않았던 국어와 국사 과목에 대한 교육이 가능해졌다.¹⁶⁾ 교과과정 운영에 있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교사 충원 문제와 교과서 편찬이었다. 학무국은 종전의 교과서를 파기하고 새로운 교과서를 편찬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일제의 교육을 일거에 탈피해 버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일부 과목은 부득이하게 일제 때 쓰던 일본어로 된 교과서를 번역해서 가르치기도 했었지만, 국어와 국사 교과서만큼은 반드시 새롭게 편찬할 수밖에 없었다.¹⁷⁾ 이에, 학무국 편수과에서는 교과서 편찬에 착수하고 국어 교과서는 조선어학회에, 국사 교과서는 진단학회에 편찬을 의뢰하였다. 그 결과 조선어학회에서 1945년 11월 20일 『한글첫걸음』(초·중등학교 전학년용)과 『초등국어독본』을 편찬하여 학무국에 제출하였으나, 진단학회의 국사 교과서는 발행이 지체되어 학무국 편수과에서 임시 국사 교과서인 『초등국사교본』을 서둘러 마련하였다.¹⁸⁾

국어와 국사 교과서가 간행되었으나, 당시 인쇄 시설과 용지 부족 등으로 학교 현장에는 교과서가 제대로 보급되지 못했다.¹⁹⁾ 이에 이주홍을 비롯한

14) 한준상, 앞의 논문, 567쪽.

15) 한준상, 앞의 논문, 569쪽 〈표6〉, 〈표7〉 참조할 것.

16) 일제시대에도 ‘국어’와 ‘국사’ 과목이 있었지만 이는 일본어와 일본사였다. 김상훈, 「해방 직후 반공 교육과 국사 교과서에서 사회주의 관련 서술 삭제」, 『역사연구』 35, 역사학연구소, 2018, 397~398쪽.

17) 김봉석, 앞의 논문, 176쪽.

18) 진단학회는 해방 후 첫 사업으로 국사 교과서 편찬을 서둘러 초등국사 교과서와 중등국사 교과서의 원고를 1945년 10월과 12월에 각각 학무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발행이 지체되었는데, 이미 학교가 개학한 상황이라 학무국은 교과서 발행을 미룰 수 없었다. 이종국, 『대한교과서사: 1948~1983』,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8, 87~89쪽.

19) 「심각한 용지난으로 인한 폐단」, 『조선일보』, 1946년 12월 10일.

현장 교사들이 자체적으로 교과용 도서를 집필, 편찬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동래고등학교 역사관에 남아 있는 서양사, 수학, 음악, 생물 등의 다양한 교과목의 유인본 교과서와 이주홍의 『初等國史』, 유인본 『新古國文選』 등의 국사, 국어 교과서가 그 예다.²⁰⁾

둘째, 이주홍이 해방공간의 어려운 출판 환경에서도 『初等國史』와 각종 유인본 교과서를 신속하게 편찬 및 발간할 수 있었던 내적 역량은 무엇이며, 『初等國史』는 학교 현장의 초등학교 학습자와 초급중학교(현재의 중학교) 학습자 및 대중 독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재였는지를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

이주홍은 일제시기부터 다양한 잡지의 편집 일을 맡아 하면서, 출판 편집자로서의 실무와 경험을 이미 갖추고 있었다.²¹⁾ 그는 1929년 서울로 상경하여 계급주의 아동잡지 『신소년』의 편집장을 역임하였으며, 1936년 종합문예지 『風林』 창간과 편집, 1939년 잡지 『영화·연극』 편집에 관여하였고, 1940년에는 잡지 『신세기』 편집장으로 일하였다.²²⁾ 그는 어린 시절 고향 합천의 서당에서 한문을 수학하였으며 중국고전을 번역할 수 있을 정도의 고전/한문 문해력을 갖고 있었다. 또한 1930년대 계급주의 아동잡지 『신소년』의 편집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잡지의 편집, 표지 장정, 인쇄까지 담당하였던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실제로, 이주홍과 동래고등학교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 교사의 회고록에 따르면, 이주홍이 편찬한 유인본 교과서의 장정은 매우 훌륭했다고 전해진다.²³⁾ 즉, 이주홍은 해방 이후 교과서를 빠르게 출간할 수

20) 이주홍이 근무했던 부산의 동래고등학교 역사관에는 해방 직후 교사들이 편찬한 유인본 교과서가 전시 및 보관되어 있다. 또한 동래고등학교 100년사에는 다음과 같은 회고담이 기록되어 있다. 해방 직후 학생들의 “관심을 많이 끈 것은 국어·국사 등의 국학”이었는데, “교과서는 아직 편찬되지 않았고 프린트물로 대용”하였으며, 국어는 “박차갑”, “김유성”, “이주홍”, “박지홍” 교사가 담당하였으며, “국사는 정중환” 교사가 “판서 위주로 수업”을 하였는데, “당시의 학생들은 처음으로 단군의 건국신화를 알게 되었으며 민족문화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동래고등학교 동창회 편, 『동래고등학교 100년사』, 동래고등학교 동창회, 2002, 257~258쪽.

21) 이주홍, 『激浪을 타고』, 삼성출판사, 1976, 284쪽을 참조할 것.

22) 류종렬, 『이주홍과 근대문학』,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4, 97~101쪽.

23) 박지홍, 「천년 묵은 거목」, 이주홍아동문학상운영위원회 엮음, 『이주홍의 문학과 인생』, 도서출판 세한, 2001, 80~84쪽을 참조할 것.

있는 내적 역량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그 의미는 『初等國史』와 비슷한 시기 발간된 임시 국정 국사 교과서 『초등국사교본』과 비교해 보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주홍의 『初等國史』와 학무국의 『초등국사교본』은 많은 부분에서 비교 대상이 된다. 『초등국사교본』은 저자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기존 연구에 따르면 학무국 역사 담당 편수관이었던 황의돈이 저술한 것으로 판단된다.²⁴⁾ 황의돈이 1945년 9월부터 편찬에 착수하여 같은 해 12월에 완성한 『초등국사교본』은 ‘해방 후 한국인이 펴낸 최초의 역사 교과서’라고 평가된다. 그런데 거의 같은 시기에 이주홍의 『初等國史』가 발행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주홍의 『初等國史』가 1945년 12월 15일에 간행되었으며, 학무국의 『초등국사교본』은 동년 12월에 완성되어 이듬해 1월에 배부되었다. 그렇다면 이주홍의 교과서가 조금이나마 더 이른 시기에 세상에 나왔다고 볼 수 있다. 해방 후 이보다 먼저 나온 국사 교과서는 발견하기 어렵다. 국정 및 검인정 교과서가 발행되지 않은 시점에 이주홍의 『初等國史』는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과서로서 상당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²⁵⁾

또한 이주홍은 투박하긴 하지만, 역사 스토리텔링의 방법으로 교과서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初等國史』는 국사교육의 내용을 초등 과정 혹은 초·중급학교 학습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듯이 풀어 쓰고 있다. 문맹률이 거의 78%에 육박하던 해방공간에서²⁶⁾ 이러한 집필 전략은 학습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이 되는데, 이는 이주홍이 동화, 동시 등의 아동문학을 창작해 온 작가적 역량을 바탕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정리하자면, 해방 직후에는 국사 교과서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는 국정이 아닌 각종 민간 교재나 자유발행 형식의 교과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²⁷⁾ 정식 국사 교과서가 편찬되어 발행된

24) 김봉석, 앞의 논문, 172쪽.

25) 김용만 외, 『한국 교육과정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1998, 25쪽.

26) 대한장학사회 편, 『교육전시회 화보』, 대한장학사회, 1958, 33쪽.

27) 해방 직전 6세에서 12세 사이 아동 350만 명 중에서 1,542,640명이 국민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1946년 초등학생 수는 2,159,336명이었다. 유네스코·온크라 교육사절단, 『한국교육상황예비조사보고서』, 1952; 문교부, 『문교통계요람』, 1963; 이광호, 『미군정의 교육정

1947년 2월 이전까지는 명문당에서 발행된 이주홍의 『初等國史』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²⁸⁾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初等國史』의 편제와 서술상의 특징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3. 『初等國史』의 편제와 서술상의 특징

당시 법령(훈령)상의 교육과정을 보면 국사는 5학년과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개 학년 동안 주당 2시간씩 수업하도록 편성되어있다. 즉 이주홍의 『初等國史』는 초등학교 고학년 혹은 초급중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졌으며, 표지, 목차 4쪽, 본문 77쪽, 부록 6쪽, 판권지 등 총 89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초등 5~6학년용 국사 교과서인 학무국의 『초등국사교본』의 분량이 58쪽인 것을 감안하면, 『初等國史』가 담고 있는 내용이 조금 더 풍성하다고 볼 수 있다.²⁹⁾

『初等國史』는 적은 분량만큼 문체 역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저학년 아동의 수준에 맞춰 비교적 평이하며, ‘국한문 혼용체’를 벗어나 ‘국문체’로 쉽게 풀어 서술하고 있다. 활자 배치와 구성은 왼쪽 위에서부터 읽는 가로쓰기가 아니라, 오른쪽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는 세로쓰기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는 1952년 편찬된 이주홍의 유인본 대학 교재 『國文學發生序說』까지 유지된다. 또한 본문 모든 쪽의 상단에 ‘주석란’을 둔 것이 특징인데, 이는 전통사서류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이다. 이것은 이주홍 특유의 의고적 태도가 ‘역사서 편찬’에도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책, 『해방전후사의 인식』 2, 한길사, 1985, 563쪽 <표1> 재인용.

28) 1946년 11월의 통계를 보면, 전국 각 학교에 보낸 초등국사 교과서는 192,983권으로 당시 학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정태수, 『미군정기 한국 교육사 자료집』 상, 홍지원, 1992, 104쪽; 박진동, 「해방 후 역사교과서 발행제도의 추이」, 『역사교육』 91, 역사교육연구회, 2004, 27쪽.

29) 두 교과서의 글자 크기와 간격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비슷한 시기 진단학회에서 중등 및 전문과정과 초등학교 교원의 참고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제작한 국사 교과서 『중등국사교본』은 177쪽 분량이다.

『初等國史』의 편제와 서술상의 특징은 시대 구분, 내용 서술 방식, 인물 서술의 특징, 본문 목차 구성과 서술 분량을 기준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初等國史』의 목차와 세부목차를 학무국의 『초등국사교본』과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初等國史』 목차 구성 (비교: 『초등국사교본』 대단원)

이주홍 『初等國史』 목차		비교 (『초등국사교본』 대단원)
편(1~5)/부록	과(1~47)	
제1편 상고사	제1과 단군조선의 시초 제2과 열국의 분립과 변란	1. 옛조선과 단군왕검 2. 여러나라의 버려짐 3. 상고의 문화
제2편 중고사	제3과 고구려의 흥기와 발전 제4과 백제의 흥기와 발전 제5과 신라의 흥기와 발전 제6과 가락의 흥기와 발전 제7과 불교의 전래 제8과 고구려의 융성 제9과 신라의 무력과 문화 제10과 고구려의 무력과 문화 제11과 삼국의 다툼 제12과 백제의 쇠퇴 제13과 고구려의 쇠퇴 제14과 남북국 시대 제15과 신라의 융성 제16과 발해의 강성 제17과 신라의 패망 제18과 발해의 패망	4. 삼국의 일어남 5. 고구려가 크고 역셈 6. 삼국의 문화 7. 발해(북조)의 일어남과 문화 8. 신라의 (남조)문화 (一) 9. 신라의 (남조)문화 (二)
제3편 근고사	제19과 고려의 건국 제20과 글안을 격퇴함 제21과 고려의 전성시대 제22과 권신의 발호 제23과 왕정의 복고 제24과 원국과 관계 제25과 내란과 외구 제26과 고려의 문화 제27과 고려의 쇠퇴	10. 고려가 일어남 11. 고려의 문화

이주홍 『初等國史』 목차		비고 (『초등국사교본』 대단원)
편(1~5)/부록	과(1~47)	
제4편 근세사	제28과 이씨조선 창업 제29과 세종 왕의 위업 제30과 세조의 치적 제31과 사회의 시작 제32과 유학의 융성 제33과 당론의 시작 제34과 임진란 제35과 인조의 반정과 팔란 제36과 만주의 입구 제37과 당론의 격렬 제38과 영정조의 문화 진보 제39과 흥경래란과 외척의 전권	12. 세종대왕의 위업 13. 임진왜란과 이순신의 큰 공
제5편 현대사	제40과 대원군의 개혁 제41과 임오군란 제42과 갑신정변 제43과 동학란과 일청전쟁 제44과 개혁 운동 제45과 신문화 수입 제46과 보호와 합병 제47과 식민지 조선	14. 일본인의 침략 15. 독립운동
부록 전세도	1. 신라 2. 고구려 3. 백제 4. 발해 5. 고려 6. 이씨조선	

첫 번째, 『初等國史』의 시대 구분 방식이다. 『初等國史』의 시대 구분은 ‘상고사-중고사-근고사-근세사-현대사’로 이루어져 있다. 시대 구분은 각 시대의 종합적인 사회구조가 이전과 이후의 시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작업으로, 서술의 필요에 의한 편의뿐만 아니라 역사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의 본질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다. 즉 시대 구분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

는 것은 역사(교육)가가 당대를 인식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주지하다시피, 오늘날의 시대 구분은 통상 ‘원시/선사-고대-중세-(근세)-근대-(일제시대)-현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근대 시기에는 왕조를 중심으로 시대를 구분하여 편년체로 서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한말에 이르러 서양 근대역사학의 연구방법과 ‘고대-중세-근대’의 새로운 시대 구분 방식이 소개되면서 1906년 현재가 편찬한 『동국사략』에서 이를 혼용하여 ‘태고사-상고사-중고사-근세사’로 시대를 구분하는 근대적인 방식이 시도되었다.³⁰⁾ 뒤이어 신채호가 『대동역사』(1907)에서 ‘태고사-상세사-중세사-근세사-최근세사’로 시대를 구분하였다.

대한제국 시기에는 다양한 국사 교과서들이 발행되었는데, 대체로 ‘상고사-중고사-근고사-근세사’로 시대 구분을 하였다.³¹⁾ 이 시기의 교과서들에는 서술 방식에 있어서도 종래와 같이 사료를 단순하게 시대순으로 나열하는 방식이 지양되고 분야별로 역사적 사실을 서술하거나 인과관계를 밝히는 새로운 근대적 역사서술 체제가 등장하였다. 이후 1920년대 문화사학자들에 의해 이러한 방식이 역사학계의 공통된 시대 구분법과 서술체제로 자리를 잡게 된다.³²⁾ 이주홍은 역사학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독자적인 시대 구분을 시도하기보다는 당시의 보편적인 시대 구분법을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주홍의 『初等國史』와 같은 시기에 나온 학무국의 『초등국사교본』은 별다른 시대 구분을 하고 있지 않으며,³³⁾ 진단학회에서 펴낸 『중등국사교본』

30) 현재의 『동국사략』은 최초의 근대적 역사개설서로 평가받지만, 전통적인 역사서술 방식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31) 1908년 발행된 유근의 『초등본국역사』, 정인호의 『초등대한역사』, 조종만의 『초등대한력사』와 1909년에 나온 안중화의 『초등본국역사』와 황의돈의 『중등교과 대동청사』는 공통적으로 ‘상고-중고-근고-현세/국조(본조)/근세’로 시대를 구분했다. 조선시대 이전까지는 모두 같았지만(상고-중고-근고) 조선시대는 현세, 국조, 근세로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박준형, 「해방 직후 간도에서 발행된 『우리국사』의 체제와 한국사 인식」, 『역사교육』 159, 역사교육연구회, 2021, 262쪽 <표5>를 참조할 것.

32) 이 시기 편찬된 황의돈의 『신편조선역사』(1923)에는 ‘상고사-중고사-근고사-근세사’로, 장도빈의 『조선역사요령』(1924)에는 ‘상고-중고-근고-근세-최근’으로, 권덕규의 『조선유기략』(1929)에는 ‘상고-근고사-근세사’ 등으로 시대 구분을 하고 있다.

33) 『초등국사교본』의 서술체계는 시대 구분 없이 통사적·연대기적인 15개 장의 대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단원의 제목은 앞의 <표 1> 비교란에 기술하였다.

은 ‘태고-상고-중고-근세-최근’으로 시대를 구분하였다.

두 번째, 『初等國史』의 교육내용 서술상의 특징이다. 『初等國史』는 〈표 1〉의 세부목차와 각 단원의 제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역대 왕조들의 창업과 쇠망, 흥기와 발전 등 정치사 서술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³⁴⁾ 오늘날은 정치사보다는 문화사와 사회·경제사를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데 반해, 『初等國史』는 기존의 역사 교과서와 같이 정치사 중심의 통사적이고 편년적 서술을 택하고 있다. 해방 직후의 시대적 과제가 우리 역사의 주체성과 위대함을 표출하여 자주적 신국가 건설로 나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初等國史』에서 역대 왕조의 정치사 중심으로 교과서의 내용을 구성한 것은 한민족 내지 한국의 유구한 역사를 강조하던 당시의 역사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初等國史』의 내용 서술 방식이 역사의 해석을 삼간 채 단지 역사적 사실을 선택적으로 배열하는 ‘정치사 위주 서술’을 택한 결과, 민족사의 다양한 내용을 조금 더 풍부하게 담아내지 못하였으며, 일제시대의 역사서술 방식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³⁵⁾

세 번째, 역사적 인물의 서술 양상이다. 『初等國史』는 각 시대의 문화면을 독립된 항목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민족문화의 우수성과 독자성을 그 시대 문화를 대표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독특한 방식을 택하고 있다. 오랫동안 아동문학 작가로 활동한 이주홍이었기에 자칫 초등학교 혹은 초급중학교 학습자들에게 어렵고 까다로울 수 있는 문화 영역을 비교적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물의 업적을 통해 교육하여 아동들의 문화적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개별 인물의 행적을 상세하게 서술하거나 시대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단지 열거하는 수준에 그치며, 인

34) 기존의 역사 교과서들 역시 대부분 정치사 중심의 통사적이고 편년적 서술로 일관하였다. 물론 『初等國史』가 정치사 서술로만 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1920년대 이후 확립된 문화사관의 흔적이 많은 부분에서 발견된다. 주요 단원의 말미에 문화면을 독립적으로 설정하여 각 시대의 문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제7과 불교의 전래〉, 〈제26과 고려의 문화〉, 〈제32과 유학의 융성〉, 〈제38과 영정조의 문화 진보〉, 〈제45과 신문화 수입〉 등에서는 아예 문화사 영역을 개별 단원으로 하여 우리 문화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이는 역사학을 왕조사나 정치사 위주로 사고하던 종래의 관성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분야로 관심을 확대된 보다 진일보한 서술체계라 하겠다.

35) 김한중, 『해방 이후 국사 교과서의 변천』,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 연구』, 선인, 2006, 24쪽.

물 선정 기준도 체계적이지 않아 그러한 의도가 관철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예를 들어 〈제26과 고려의 문화〉 단원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김황원, 정치상, 이규보, 임춘, 김부식, 금의들의 큰 선비가 나서 문화에 큰 공을 이루고 안유, 우탁, 백이정들의 선비는 쇠퇴하여졌든 유교를 다시 일으키어 널리 퍼며 이제현, 이색, 정몽주는 선비일뿐 아니라 나라 정사에도 큰 자리를 갖고 있었다. 또 탄연, 유신들의 글씨, 안귀생, 이영들의 그림은 뒤 세상에까지 이름이 높으며 활자의 발명과 대장경의 판각은 세계에 제일이요 그 밖에 건축, 조각, 예술들에 볼만한 것이 많다.³⁶⁾

특정 인물과 그의 활동을 이끌게 했던 역사적 배경을 연관시켜 교육하는 인물 학습은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³⁷⁾ 하지만 수많은 인물의 단순 나열은 오히려 학습 의욕을 떨어뜨리고 암기 부담만 가중시킨다. 교과서에 어떤 인물을 어떻게 수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교과서 서술의 핵심 중 하나로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인물은 역사적 사건의 주체이자 역사 발전의 구심일 수 있다. 『初等國史』에는 주로 문화면에 관련된 인물이 수록되었는데, 정치적 인물도 상당수 선정되어 있다. 정치적 인물 역시 대부분 나열에 그치지만 그 가운데 연개소문, 장보고, 흥선대원군 등 특정 인물을 과다하게 제시하고 있어 자칫 영웅주의사관으로 흐를 위험 역시 없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각 왕조의 주요 왕들은 거의 빠짐없이 수록하고 있어서 왕조 중심의 역사교육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네 번째, 『初等國史』의 본문 목차 구성과 서술 분량에 관한 문제이다. 『初等國史』는 제1편 상고사 1쪽~5쪽(5), 제2편 중고사 5쪽~27쪽(22), 제3편 근고사 27쪽~39쪽(12), 제4편 근세사 39쪽~57쪽(18), 제5편 현대사 57쪽~77쪽(20)으로 구성되어 있으며(괄호의 숫자는 쪽 분량임), 하위목차에 각 ‘과’의 내용과 ‘부록’을 포함하고 있다.

36) 각주에서 이주홍 『初等國史』의 내용 출처를 표기할 때는 이주홍, 『初等國史』, 명문당, 1945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이주홍, 『初等國史』, 명문당, 1945. 36~37쪽.

37) 김경미, 『미군정기 『국사교본』 연구』, 『이화교육논총』 3,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1992. 66쪽.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初等國史』는 상고사 다시 말해, 단군시대와 고조선 및 부여, 삼한 등 초기국가의 서술이 5쪽 분량에 불과해 소략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경계에 위치한 시대적 특성상 사료와 기술할 내용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후대의 역사 서술과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어지는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에 해당하는 ‘중고사’ 서술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반면에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근고사’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³⁸⁾ 그렇다면, 이주홍의 『初等國史』는 왜 이렇게 고대사에 많은 비중을 둔 것일까.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분석하겠지만, 그것은 먼저, 해방 직후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나 우리 역사의 주체성과 한민족의 강대함을 드러내기 위해 광대한 영토를 지녔던 고구려와 발해를 강조하고자 한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에 관한 서술 과정에서 항상 고구려를 신라와 백제보다 먼저 서술하고 그 비중이나 분량 역시 고구려가 두 나라보다 앞서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주홍의 고대사 분량 배치와 서술 태도는 한말 계몽주의적 역사학에서 ‘강대국 고구려’ 중심의 고대사관이 등장한 이래 일제시기에 신채호, 박은식, 정인보 등의 민족주의 역사가들이 확립한 고대사 중심의 역사관을 『初等國史』에 투영 및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장에서 『初等國史』의 고대사 서술과 이주홍의 역사인식을 조금 더 상세하게 고찰해 볼 것이다.

38) 사실, 『初等國史』의 분량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조선시대사 서술이다. 제4편 근세사의 〈제28과 이씨조선 창업〉에서 제5편 현대사의 〈제46과 보호와 합병〉까지로 무려 19개 단원을 할애하고 있다. 또한 마지막 단원인 〈제47과 식민지 조선〉은 모든 단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과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당시는 미군정 점령 하에 아직 새로운 자주국가가 수립되기 이전 시기로서 직전 왕조인 조선국가와 일제 식민지 시기에 대한 서술이 많을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 서술체계로 보인다. 부차적으로 이 시기는 사료도 풍부하고, 더구나 이주홍 자신이 멸망 전 조선에서 태어나서 식민지 시대를 온전히 몸소 겪은 터라 개인적 경험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되었을 것이다.

4. 『初等國史』의 고대사 서술과 민족사 재구성 의지

일제 지배하의 학교 현장에서 배제되었던 국사교육이 해방으로 인해 재개 되면서 자연스럽게 민족주의 역사가들의 논의가 주목을 받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민족주의 역사가들의 논의는 주로 고대사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주홍도 그에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初等國史』의 고대사 서술을 중심으로 그의 역사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해방 직후 빠르게 발행된 국사 교과서 『初等國史』에서 한민족 내지 민족사의 주체를 지칭하는 용어나 표현을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이주홍을 비롯한 당시 지식인이 가진 역사인식의 단면을 읽을 수 있는 방안이 된다.

『初等國史』 ‘상고사’ 편에는 “우리 사람”, “조선사람”이라는 용어가 각각 한 번씩 등장한다. ‘중고사’ 편에는 우리 역사 주체를 표현하는 용어가 따로 등장하지 않는데, 아마도 이 시기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 여러 나라가 병존하고 있었기에 각 나라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발해의 패망 부분에서 “조선 사람”이 한 번 등장한다. ‘근고사’ 편에서는 “조선사람”과 “우리들”이 각각 한 번씩 사용되었고, ‘근세사’ 편에서는 “우리”가 두 번 등장한다. 마지막 ‘현대사’ 편에서는 조선왕조가 멸망하기까지 특별한 지칭 표현이 나오지 않다가 식민지 시기에 들어서면 “조선 민중”, “우리 동포” “나라 백성”, “민족”이 각 한 번씩, 그리고 “우리 조선”이 두 번 나온다.

이와 같이 ‘國史의 주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식민지 시기에 가서 다양해지고 횡수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해방 정국에서 널리 쓰이던 민족이나 동포와 같은 표현이 단 한 번씩만 사용된 부분은 체크해 둘 필요성이 있다. 『初等國史』와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라 할 수 있는 학무국의 『초등국사교본』을 보면 민족, 동포, 겨레, 국민, 우리, 조선, 조국, 반도 대한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었고, 이러한 표현이 등장하는 횡수도 118회에 이른다. 진단학회가 편찬한 『중등국사교본』에도 역시 민족, 동포, 겨레, 국민, 우리, 조선, 조국, 반도, 대한 등 다양한 표현이 등장하고 빈도 또한 162회나 된다.³⁹⁾

『初等國史』에 국사의 주체를 지칭하는 표현이나 용어가 다소 적게 등장하는 이유가 이주홍의 작가로서의 문제 때문인지 서술 방식이나 역사인식 태도에서 기인하는 것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와는 별개로 “조선사람”과 “우리 조선”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된 것을 보면 이주홍이 국사의 주체를 단군과 고조선에서부터 기원하는 단일한 계통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단군과 고대사 서술을 통해 이주홍의 역사인식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자.

(1) 맨처음 아득한 옛날의 조선은 지금의 조선과 만주를 합친 것이었다. 우리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오천여년 전에 시베리아로부터 들어와 많은 미개한 백성을 물리치고 만주와 조선에 거러앉아서 지금까지에 이르렀다.⁴⁰⁾

(2) 우리 할아버지들은 핏줄을 같이한 한 겨레로서 한 마음 한 뜻을 먹고 모두 한 덩어리가 되시어 만주 별판으로부터 이 반도에 까지 내려 오시면서 퍼져 사시는 (중략) 곧 황색인종 중에 한 부분인 조선민족이다.⁴¹⁾

(1)과 같이 시작하는 『初等國史』의 첫 페이지는 무척 인상적이다. 대부분의 저작이 그러하겠지만 책의 첫 문장(문단)은 저자가 심혈을 기울여 쓰기 마련이다. 이주홍은 시베리아에서 남하한 이주민 집단을 우리의 직계 조상으로 보고 이들이 미개한 백성, 즉 토착민들의 땅을 정복하면서 한반도 민족사가 시작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하나, 『初等國史』의 이러한 고대사(상고사) 서술 내용은 제국주의시대의 전형적인 사회진화론적 역사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역사인식 및 서술의 한계는 (2)에서 인용한 학무국의 『초등국사교본』 내용과 비교할 때 더욱 분명해진다. 선사시대부터 만주와 한반도에 옮겨

39) 박태선, 「미군정기 국사 교과서의 '민족' 서술」, 『한국역사교육학회 학술대회』, 한국역사교육학회, 2009, 52~53쪽.

40) 이주홍, 『初等國史』, 명문당, 1945, 1쪽.

41) 미군정청 학무국 편, 『초등국사교본』, 미군정청 학무국, 1946, 1쪽.

와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와 같은 혈통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初等國史』와 『초등국사교본』이 같지만, 후자는 “우리 할아버지”, “핏줄을 같이한 겨레”, “한 마음 한 뜻”, “조선민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정복이 아니라 융합을 강조하면서 ‘한 겨레’의 역사 서술을 시작한다. 이는 두 교과서의 저자인 이주홍과 황의돈의 역사인식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주홍이 『初等國史』에서 단군과 고조선은 어떻게 서술했는지를 살펴보자.

맨처음으로 조선사람들을 다스리신 이는 환웅(桓雄)이라는 임금이니 하느님의 명령으로 무리 삼천인을 거느리고 천부인(天符印) 세 개를 가지고 태백산(太白山)의 신단(神壇)나무 아래에 나리시와 (중략) 환웅임금은 신웅(神熊)님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으사 이름을 왕금(王儉)이라 하시다. 지금으로부터 사천이백칠십여년전에 임금이 되시니 이 어른이 곧 단군이시다.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하고 서울을 평양에 두며 안팎으로 모든 정사를 굳게 하니 이에 벌써 밝은 나라가 되었다.⁴²⁾

『初等國史』에는 『삼국유사』로 익숙한 곰과 호랑이 그리고 쑥과 마늘이 등장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하느님의 명을 받은 환웅이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 아래에 내려와 나라를 다스리다 신웅과 결혼하여 단군을 낳았고, 이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했다는 단군설화를 토대로 상고사를 서술하여, 안정복의 『동사강목』 이래 계몽주의·민족주의 사학자들의 보편적인 인식이었던 신화 유형을 교과서에 담고 있다. 또한 고조선의 건국연대를 무진년설(기원전 2333년)에 입각하여 지금(1945년)으로부터 4270여 년 전이라고 한 것이나, 도읍지를 평양이라 한 것 역시 한말 이래 굳어진 보편적 역사서술의 내용을 대체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고조선의 계보와 관련해서 『初等國史』는 단군조선이 도읍을 아사달로 옮기면서 쇠약해졌고, 이후 여러 나라가 일어났다고 서술하고 있다.

42) 이주홍, 『初等國史』, 명문당, 1945, 1~2쪽.

단군의 후손이 정사를 한지 천여년 뒤에 서울을 아사달(황해도 구월산)에 옮기었으나 이로부터는 나라의 형세가 차차로 쇠약해졌다. 단군조선이 쇠약하여지고난 뒤로는 천하가 여러 쪽으로 나누어 그 뒤로 많은 나라가 일어났다.⁴³⁾

이어서 단군조선이 물러난 평양에서는 은나라에서 들어온 기사가 기씨조선을 세워 번성하였고, 만주에서는 부여가, 한반도에서는 마한·진한·변한의 삼한이 일어났다고 서술하였다. 이후 기씨조선은 준왕 때 한나라에서 쫓겨 들어온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남하하여 마한으로 들어가 기씨마한을 세워 삼한을 다스렸다고 기술했다. 즉, 단군조선에서 삼한으로 이어지는 계보의 가운데에 기자조선을 위치시키고 있는데, 이는 단군조선-기자조선-마한(삼한)-신라로 이어지는 이른바 ‘삼한정통론’을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기자조선의 실체와 정통성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고, 실증사학의 강한 영향 아래에 있는 오늘날의 국사 교과서에는 기자조선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단군과 고조선’ 이후의 고대사 서술에서는 이주홍의 독특한 시각과 인식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부여, 기자조선, 삼한 “그 밖에도 동편에는 예(이제 강릉) 맥(이제 춘천) 옥저 나라가 일어나고 만주 동편에는 숙신 나라가 일어나서 서로 싸움이 그치지 아니하였다”⁴⁴⁾고 서술하여 숙신을 예맥, 옥저 등과 함께 한국사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 듯하다. 숙신은 읍루, 말갈, 여진을 거쳐 만주족으로 이어지는데, 진수가 편찬한 『삼국지』의 「위지」에는 이들을 부여, 고구려, 한(韓) 등과 함께 ‘동이’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한국사에서는 대체로 이들을 오랑캐로 인식하여 예맥 계통인 한민족과 구분하고 있다. 후술하겠지만 이주홍은 발해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구려인과 함께 발해를 구성한 주요 민족인 말갈족을 고려해서 이들을 한국사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43) 이주홍, 『初等國史』, 명문당, 1945, 2~3쪽.

44) 이주홍, 『初等國史』, 명문당, 1945, 4쪽.

『初等國史』는 부여를 고조선 못지않게 강조하여 서술하고 있다. 평양 일대의 위만조선이 한나라에 멸망하여 그 땅에 한나라 사람들이 사군(낙랑, 임둔, 진번, 현도)을 설치하여 다스렸고, 만주에서는 부여가 강성하여 나라를 세운 지 천여 년이 지나 해부루가 동부여를, 해모수가 북부여를 각각 세우고, 서남쪽에도 졸본부여가 일어나 세 부여로 나뉘어졌다고 서술하였다.⁴⁵⁾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해모수와 해부루 신화와는 다소 다른 내용이며 부여를 천년의 역사를 가진 유구한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고대사의 중심에 부여를 위치시켜 이해한 것은 신채호가 『독사신론』에서 제기한 고조선을 포함한 ‘부여족 중심의 역사인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⁴⁶⁾

이주홍은 단군조선 이후 이 시기까지를 ‘열국(列國)시대’라고 하였는데, 뒤이어지는 시기는 소위 삼국(三國)시대가 아닌 사국(四國)시대로 인식하고 있다. 그가 ‘사국시대’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지만 『初等國史』에서 만주의 부여를 고구려가 계승하였고, 한반도 남부의 마한, 진한, 변한을 각각 백제, 신라, 가야가 이어받은 것으로 이해하면서 <제3과 고구려의 흥기와 발전>, <제4과 백제의 흥기와 발전>, <제5과 신라의 흥기와 발전>, <제6과 가락의 흥기와 발전> 등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사국을 동일한 제목 아래 같은 비중으로 서술하였다. 『初等國史』가 삼국시대 개념을 탈피하여 ‘사국시대론’을 전개한 것은 당시 흔치 않던 서술체계였다.⁴⁷⁾ 그 이유는 무엇일까? 식민주의 사학의 대표적인 주장인 ‘임나일본부설’에 의하면, 고대 가야 지역은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곳이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주홍은 가야가 일본의 지배를 받던 ‘지역’이 아니라,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던 ‘나라’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러한 서술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初等國史』의 고대사 서술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른바 ‘남북국시대론’

45) 이주홍, 『初等國史』, 명문당, 1945, 4~5쪽.

46) 박준형, 앞의 논문, 267쪽.

47) 『삼국유사』 왕력편에 삼국과 나란히 가락국의 왕력이 서술되어 있어 이미 고려 때부터 있어왔던 인식이라 볼 수도 있지만, 가야를 삼국과 대등한 비중으로 서술한 역사서는 드물다.

의 채택이다. 『初等國史』는 신라의 삼국 통일에 그다지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 <제12과 백제의 쇠망> 단원에서 “의자왕 이십년 칠월에 서울 소부리가 문어지고 많은 성이 헐리며 의자왕이 당나라 군사에게 잡히어가니 그로부터 백제는 망하여지고 말았다”⁴⁸⁾고 하였고, <제13과 고구려의 쇠망> 단원에서도 “보장왕 이십칠년 시월에 평양성이 문어지고 보장왕이 당나라에 잡히어가니 고구려는 이에 멸망하였다”⁴⁹⁾라고 하여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이라는 사실 관계만 간략히 기술하였으며, 신라의 통일에 어떤 의미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이어지는 제14과 단원의 제목이 ‘남북국시대’로 기술된 것은, 이주홍이 삼국통일의 의의를 외면하고 발해사를 적극적으로 한국사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뜻한다. 즉, 발해사의 가치를 부각하는 역사서술의 전략을 통해 신국가 건설에 필요한 ‘민족사 재구성’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유득공의 『발해고』에서부터 발해를 우리 역사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으나, 이른바 (통일)신라와 발해를 동등한 위치에 두고 ‘남북조시대’로 규정한 것은 박은식이 1911년에 쓴 『발해태조건국지』가 최초이다. 국권 침탈의 위기 속에 우리 민족의 역사 무대를 만주까지 확대하여 고구려와 발해를 적극적으로 인식한 신채호는 고대사의 정통성을 ‘고조선-부여-고구려-발해’로 이어지는 계보로 재인식하고, 1908년 『독사신론』에서 통일신라를 부정하며 신라와 발해가 병존하던 시기를 ‘양국(兩國)된 시대’라고 하였다. 이후 1917년 장도빈의 『조선연표』에서 ‘남북조’가, 1922년 황의돈의 『조선신사』에서 ‘남북양조시대’가 사용되면서 남북국시대론은 점차 보편화되었다.⁵⁰⁾ 물론 당연하게도 식민주의 사학은 남북국시대론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사 교과서에는 이미 대한제국 시기부터 발해를 강조한 경우가 많이 보이지만, 정작 실학자들과 박은식, 신채호 등의 발해사 인식을 계승해 발해와 신라를 ‘남북조’ 혹은 ‘남북국’으로 시대 구분하여 서술한 교과서는 1912년

48) 이주홍, 『初等國史』, 명문당, 1945, 19쪽.

49) 이주홍, 『初等國史』, 명문당, 1945, 20쪽.

50) 박준형, 앞의 논문, 269쪽.

계봉우가 쓴 『최신동국사(우리국사)』와 1929년 황의돈의 『중등조선역사』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계봉우의 『최신동국사』가 만주에서 사용된 것임을 고려한다면 해방 이전에 국내에서 발행한 교과서 중에서 남북국시대를 규정한 것은 황의돈의 『중등조선역사』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⁵¹⁾

일반적으로 교과서는 축적된 여러 연구성과와 업적 중에서 그 시대에 정설로서 인정되는 사실을 수록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은 수록하지 못한다. 이주홍이 『初等國史』에서 남북국시대론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해방 직후에는 아직 체계적인 국정 국사 교과서가 발행되지 않았으며, 둘째, 『初等國史』는 자유발행 형식으로 발간된 교과용도서로 저자의 역사인식과 서술 방식이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한편 학무국에서 발간한 『초등국사교본』 역시 남북조시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저자가 황의돈이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진단학회가 편찬한 『중등국사교본』에는 발해에 대한 목차나 단원이 없으며, 〈삼국의 통일과 문화〉, 〈민족과 문화의 통일〉이라는 단원을 두어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해 상당한 비중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初等國史』와 비교가 된다.

정리하자면, 『初等國史』의 고대사 서술 방식과 교육내용은 해방 직후 민족주의사관의 민족사 재구성 경향에 대체로 수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군과 고조선 이후의 서술 내용, 그리고 부여, 고구려, 발해를 강조하고 있는 고대사 교육내용이 그 방증이다. 이주홍의 이러한 역사인식과 서술 내용은 남북조시대의 서술과 신라 통일이 아니라 발해의 부흥을 강조하는 서술 방식에서 명료하게 구체화되었다. 이주홍의 고대사 인식과 서술은 해방 직후의 시대적 과제, 다시 말해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을 향한 열망을 『初等國史』에 반영한 역사인식이자 교육적 실천으로 볼 수 있다.

51) 김봉석, 앞의 논문, 188쪽; 박준형, 앞의 논문, 269쪽.

5. 결론

지금까지 1945년 12월 15일 이주홍이 집필하고 자유발행 형식으로 명문당에서 펴낸 국사 교과서 『初等國史』의 편찬 배경, 역사 서술체제와 특징, 고대사 교육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이주홍 연구에서 조명되지 못했던 역사인식과 교육적 실천 양상을 고찰해 보았다.

이주홍은 부산을 대표하는 아동문학가이자 교육자이다. 1947년 여름 부산으로 내려온 이후 평생 지역에서 작가이자 교육자로 살아왔으나, 교사/교수로서의 교육적 활동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으며, 세 곳의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펴낸 다양한 교과용 도서에 대해서도 충분한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교육자로서의 생애 및 전기와 유인본 문학 교과서에 대한 접근이 일부 이루어졌을 뿐이다.

그러나 해방 직후 이주홍이 속도감 있게 펴낸 『初等國史』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로 왜곡되고 훼손된 민족사의 전통과 가치를 복원하기 위한 저자의 역사인식과 교육적 의지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교과용 도서이다. 특히, 이 책의 고대사 서술체제와 교육내용은 식민주의 사학으로부터 벗어나 민족사를 새롭게 재구성하고자 하는 이주홍의 교육적 실천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례이다.

『初等國史』의 편제와 서술상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이 국사 교과서의 편찬 방식은 크게 네 가지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初等國史』의 시대 구분은 '상고사-중고사-근고사-근세사-현대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당시의 보편적인 시대 구분법을 따른 것이다. 둘째, 『初等國史』는 기존의 역사 교과서와 같이 정치사 중심의 통사적이고 편년적 서술을 택하고 있어, 역사서 서술의 내용적, 형식적 한계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셋째, 학습자들이 흥미를 갖고 국사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각 시대별 문화를 대표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개별 인물의 선정 기준이 체계적이지 않고 왕조 중심의 나열 방식을 탈피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넷째, 『初等國史』의 본문 목차 구성과 서술 분량을 분석한 결과, 고대사 비중이 매우 높았다. 이는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확립한 고대사 중심의 역사관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初等國史』는 민족주의 사학자들의 역사인식과 서술 내용에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일부 독자적인 서술 방식을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初等國史』의 고대사 서술과 교육내용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교과용 도서의 고대사(상고사) 서술 내용에서 제국주의시대의 사회진화론적 역사인식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이는 학무국의 『초등국사교본』 내용과 비교할 때 뚜렷하게 확인된다. 둘째, 『初等國史』의 ‘단군과 고조선’ 서술은 보편적 민족사 서술의 내용을 대체로 따르면서도 현재의 교과서나 주류 학계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기자조선을 강조하기도 한다. 셋째, ‘단군과 고조선’ 이후의 고대사 서술에서 이주홍의 독특한 시각과 인식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고구려와 부여 및 가야의 역사적 전통을 강조하는 서술 내용이다. 넷째, 이주홍은 “남북국시대론”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初等國史』의 고대사 서술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이다. 즉 발해를 포함한 고대사의 가치를 부각하는 역사서술의 전략을 통해 신국가 건설에 필요한 ‘민족사 재구성’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주홍의 국사 교과서 『初等國史』는 몇 가지 서술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해방 직후 민족주의사관의 역사 서술에 합류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주홍의 교과서 편찬, 고대사 서술은 해방 직후의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역사인식이자 교육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그의 고대사 교육내용과 서술 방식에서 식민주의 사학 및 사회진화론적 서술 태도와 한계가 발견되는 것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이 시대적 한계인지, 작가이자 교육자로의 한계인지에 대해서는 이주홍의 『初等國史』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규명하도록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이주홍, 『初等國史』, 명문당, 1945.
미군정청 학무국 편, 『초등국사교본』, 미군정청 학무국, 1946.
진단학회 편, 『중등국사교본』, 진단학회, 1946.
내무부 치안국 편, 『미군정법령집』, 내무부 치안국, 1956.
대한장학사회 편, 『교육전시회 화보』, 대한장학사회, 1958.

2. 논저

- 김경미, 「미군정기 『국사교본』 연구」, 『이화교육논총』 3,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1992.
김봉석, 「『초등 국사교본』의 특징과 역사인식」, 『사회과교육』 47-1,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2008.
김상훈, 「해방 직후 반공 교육과 국사 교과서에서 사회주의 관련 서술 삭제」, 『역사연구』 35, 역사학연구소, 2018.
김용만 외, 『한국 교육과정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1998.
김한중, 「해방 이후 국사 교과서의 변천」,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 연구』, 선인, 2006.
김흥수, 『한국역사교육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2.
동래고등학교 동창회 편, 『동래고등학교 100년사』, 동래고등학교 동창회, 2002.
류종렬, 『이주홍과 근대문학』,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4.
박지홍, 「천년 묵은 거목」, 『이주홍의 문학과 인생』, 도서출판 세한, 2001.
박태선, 「미군정기 국사 교과서의 ‘민족’ 서술」, 『한국역사교육학회 학술대회』, 한국역사교육학회, 2009.
박태일, 「이주홍론—교육자로서 걸었던 길」, 『경남·부산 지역문학 연구』 1, 청동거울, 2004.
박준형, 「해방 직후 간도에서 발행된 『우리국사』의 체재와 한국사 인식」, 『역사교육』 159, 역사교육연구회, 2021.

- 박형준, 「이주홍의 유인본 교과서와 문학교육—『新古國文選』을 중심으로」, 『인문학논총』 45,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 (사)이주홍문학재단, 『이주홍 문학저널』 1-4, 세종출판사, 2006.
- 이광호, 「미군정의 교육정책」, 『해방전후사의 인식』 2, 한길사, 1985.
- 이종국, 『대한교과서사: 1948~1983』,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8.
- 정태수, 『미군정기 한국 교육사 자료집』(상), 홍지원, 1992.
- 한준상, 「미국의 문화침투와 한국교육-미군정기 교육적 모순 해제를 위한 연구과제」, 『해방전후사의 인식』 3, 한길사, 1987.

〈Abstract〉

**A Study on the Implications of Lee Chowhong's
『Textbook of Korean History for Elementary School』
Right after Liberation and the Description
of Ancient History**

Seo, Yong-Tae·Park, Hyung-Jun

This thesis analyzes the background of the compilation, the history narrative system and characteristics, and the content of ancient history education in 『Korean History Textbook for Elementary School』, which was written and published by Lee chowhong's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Through this, Lee chowhong's historical awareness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which were not sufficiently identified in previous studies, were considered. After liberation, in a situation where national history textbooks in his native language were not published and disseminated, Lee chowhong's quickly published 『Korean History Textbook for Elementary School』 based on his capabilities as a children's writer and editor-in-chief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re are four characteristics of the compilation and description of 『Korean History Textbook for Elementary School』 was influenced by the historical recognition and description of nationalist historians. However, some independent narrative methods show the content. The description of ancient history and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contents in 『Korean History Textbook for Elementary School』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he description of ancient history in this textbook, the historical awareness of social evolutionism in the era of imperialism appears. Second, the description of 'Dangun and Gojoseon' in this textbook largely follows the contents of the description of universal national history. However, in the current empirical history, there are also emphasis on

‘Giza Joseon’, which is not recognized. Third, in the description of ancient history after ‘Dangun and Gojoseon’, the historical tradition of ‘Goguryeo’ and ‘Buyeo’ is emphasized. Fourth, Lee chowhong's adopts “The theory of Northern and Southern Kingdoms”. This is the most noteworthy part of the description of ancient history in 『Korean History Textbook for Elementary School』. Lee chowhong's showed historical awareness and educational practice expressing his will to ‘reconstruct national history’ necessary for the construction of a new nation through a historical narrative strategy that highlights the value of ‘Balhae history’.

* Key Words: Lee Chowhong, 『Textbook of Korean History for Elementary School』, Textbook of Korean History, Korean History Education, Historical Awareness

· 논문투고일: 2023년 6월 12일 · 심사완료일: 2023년 7월 8일 · 게재결정일: 2023년 7월 16일
--

